

CEO 동정

수인선 오이도-송도 등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6월 19일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 등 수도권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시운전 열차 탑승 및 송도역, 연수역 등 개통구간을 점검하고 수인선 건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남고속철도 등 현장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3일 오송고가, 갈산터널 등 충청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게 당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동순천-광양간 복선전철 개통

- 남해안권 산업단지 배후 철도수송망 확충 -

공단은 동순천~광양(8.0km) 구간의 경전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완공하고 6월 21일 개통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31억원을 투입하여 경전선 단선 비전철 구간을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7월 착공한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개통되었다. 순천~광양 복선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선로용량이 1일 21회에서 88회로 대폭 증가되고, 운행시간도 9분에서 7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전기기관차 운행으로 수송원가(동력비)도 디젤기관차 대비 68% 수준

으로 절감된다. 순천~광양 구간은 경전선 순천~삼랑진(156.3km)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일부로서, 삼랑진~마산(40.6km)이 2010년 12월 개통하였고, 마산~진주(53.3km)는 2012년 12월 개통되고, 진주~광양(51.5km)도 2015년 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전선(순천~삼랑진) 구간이 모두 복선전철로 완공되면, 전라도(순천, 광양)과 경상도(부산, 삼랑진)간 교통·물류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및 남해안 벨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2년도 상반기 경영진 워크숍 개최



김광재 이사장은 6월 23일 본사 상황실에서 경영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상반기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가졌다.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사업 개통

- 국내최장 나선형 산악터널인 솔안터널 건설 -

공단은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17.8km 철도이설 구간을 6월 27일 솔안터널(L=16.7km)을 건설하여 개통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였다. 동백산~도계간은 태백산맥을 통과하는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산골터널 등 16개의 노후 터널과 *스위치백철도 등으로 인해 열차의 안전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내최장 나선형 산악터널인



'99년 착공하여 5,3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동백산에서 도계간 운행시간이 36분에서 16분으로 20분 단축되고, 선로용량이 30회에서 35회로 늘어나 영동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사업 개통으로 태백산과 삼척시 도계읍 구간의 협준한 지형을 운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내에서 하나뿐인 스위치백(switchback) 철도는 운행을 중단하게 되나,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 *스위치백(Switch-Back)철도: 산간지방 등 높이가 많이 나는 구간에 열차운행이 가능 하도록 선로를 "Z" 자 형으로 설치한 철도임

건설노조 작업거부 『대책본부』 운영

- 불법 작업거부시 계약해지, 작업 방해시 고발조치 강력 대응 -

공단은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의 작업거부로 인한 철도건설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 26일부터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파업종료시까지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부이사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건설본부와 기술본부의 사업담당 부서장별로 지역본부를 구성하였으며, 5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상황실을 가동하여 전국의 철도건설현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철도건설현장의 건설장비는 2,168대로 그 중 917대(42%)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중 약 600여대가 작업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 현장소장과 감리단에서 이들을 적극 설득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체장비를 확보하여 불법으로 작업거부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장비를 투입하는 한편, 불법 작업방해시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

